

조선대 류영상 교수, ‘당뇨병 치료제’ 새 기전 규명

체중과 무관하게 지방세포 기능 개선...대사 건강 증진 효과

조선대학교는 30일 “의학과 류영상 교수가 체중과 무관하게 지방세포 기능을 개선하는 당뇨병 치료제의 새로운 기전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거나 충분히 분비되지 않아 혈당이 높아지는 질환으로, 비만 및 대사증후군과 밀접하게 관련된 가장 흔한 만성질환 중 하나다. 연구팀은 제2형 당뇨병 환자 160명을 대상으

로 24주간 새로운 당뇨병 치료제인 이나보글리플로진(enavogliflozin)의 임상시험을 시행했다. 그 결과 이나보글리플로진이 체중이 줄지 않더라도 혈중 렙틴(leptin) 수치를 현저히 낮춰 혈당 조절 능력과 대사 건강을 개선한다는 효과를 확인했다. 이번 성과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단순한 혈당·체중 관리 차원을 넘어 지방세포 기능 조



류영상 교수

류영상 교수는 “이번 연구는 당뇨병 치료제를 단순한 혈당이나 체중 관리용 약제가 아니라, 대

절을 통한 대사 건강 개선이라는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 심혈관질환 환자에게 SGLT2 억제제의 이로운 대사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임상적 의미가 크다.

사 건강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새로운 치료 전략으로 확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며 “앞으로 심혈관질환과 대사질환 등 만성질환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성과는 국제 전문 학술지 ‘Cardiovascular Diabetology (IF 10.6)’ 최신호에 게재됐으며, 조선대·조선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류영상 교수가 제1저자, 성균관대·강북삼성병원 내분비내과 박철영 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나는 기다려요’·‘별을 찾는 아이’

영암 이야기 담은 창작 그림책 발간 ‘눈길’

영암군은 최근 왕인박사유적지에서 출판기념식을 열고 지역의 역사와 자연, 문화를 배경으로 기획·창작한 그림책 2권을 선보였다.

이번 선보인 그림책은 ‘나는 기다려요’, ‘별을 찾는 아이’로, ‘영암 옛이야기 그림책 발간 사업’으로 창작됐다.

‘나는 기다려요’는 영암의 월출산 큰바위얼굴을 모티브로, 모든 생명이 하나의 빛에서 태어나 서로 연결된 존재임을 알리며 기다림·화해·사랑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별을 찾는 아이’는 아빠와 별뿔별을 보러 간 주인공 윤이가 왕인박사 책글에서 영감을 받아 자신만의 별에 ‘왕인’이라는 이름을 붙이겠다고 다짐하는 이야기로, 역사·우주·꿈을 연결한 감동을 전한다. 특히 왕인박사의 가르침과 지역의 역사를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풀이해 상상력을 자극하는 작품으로 왕인박사유적지에서 소개해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출판기념식에는 오치근, 오은별 작가의 그림책 이야기, 독자와 대화가 진행돼 가족 단위 행사 참



가자들이 월출산국립공원 자락 아래서 문학과 어울리는 시간을 선사했다.

우승희 군수는 “2027년까지 총 16권 영암 이야기 그림책이 발간될 예정이다”며 “그림책으로 영암을 사랑하는 분들, 아직 영암을 잘 모르는 분들 모두 영암과 더욱 친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두 그림책 이외에도 이미 옛이야기 그림책 발간 사업으로 ‘열두 번 노는 날’, ‘바위를 별짓지’, ‘특별한 꿀과 특별한 친구’, ‘배재 좋은 응기촌 사람들’ 4권을 출간했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한국천사운동 호남본부 30일 산수동 푸른길 분수공원과 산수문화마당에서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의 자장면 나눔 및 문화예술공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한국천사운동 호남본부, 천사데이 나눔 봉사

산수동 푸른길 등서 소외계층 ‘자장면 나눔·문화예술공연’

한국천사운동 호남본부(본부장 선종석)는 30일 동구 산수동 푸른길 분수공원과 산수문화마당에서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의 자장면 나눔 및 문화예술공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10월 4일 천사데이 행사를 추측 연휴 관계로 앞당겨서 실시했으며, 미소문화예술단의 문화예술공연을 시작으로 천사데이 기념식, 푸른길 정화활동, 짜장면 봉사, 행운권 추첨 등으로 진행됐다.

봉사활동을 기획한 이정호 사무총장은 “천사운동은 지구촌 모든 사람들의 희망을 지켜주는 운동

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더불어 모든 천사들의 작은 나눔이 크나큰 희망의 원동력이 되길 기대한다”며 “천사의 날이 세계 UN이 지정하는 기념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의 불우이웃을 살피고,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인, 난치병어린이, 다문화 가정 등 각종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회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흥기월 광주시의원도 천사회원으로서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광주서부교육지원청, 추석 앞두고 이웃사랑 실천

아동양육시설 등 6곳에 200만원 상당 물품 전달

광주시서부교육지원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30일 사회복지시설 6곳을 대상으로 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하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성철 교육장과 교직원 등은 이날 남구 아동양육시설 ‘신애원’, 광산구 ‘광주초등가정형 Wee센터(햇살마당)’를 찾아 생활용품 등을 전달했다. 또 공동생활가정(그림출) ‘꿈사랑’ 등 시설 4곳에 물품을 지원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행사는 나눔을 실천해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서부교육지원청 이성철 교육장은 “어려운 속에도 아동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헌신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갖고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김태군 전남도의회장, 소외계층 온정 나눔

광양 시설 4곳 찾아 위문품 전달·종사자 격려

전남도의회 김태군 의장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온정 나눔을 실천했다. 김 의장은 29일 광양시 봉강노인요양원, 마유나 누리센터, 마동주간보호센터, 햇빛마을주거보호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4곳을 차례로 방문해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생필품을 전달했다.

이번 위문은 명절 기간 외로움과 돌봄 공백을 겪기 쉬운 취약계층을 위로하고, 현장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장은 각 시설에서 근무 여건과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소통의 자리도 가졌다.

김 의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시는 종사자분들의 헌신



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도의회도 도민 복지 향상을 위해 세심한 관심과 실질적 정책으로 도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ws1@gwangnam.co.kr

PEOPLE

2025년 10월 1일 수요일



광주 북구의회

복지시설에 명절 위문품 전달

광주 북구의회가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와 따뜻한 정을 나눴다.

30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최무송 의장을 비롯해 최기영·김영순·이숙희·정성용 의원이 최근 각화동 초록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찾아 위문품을 전달했다. 또 임종국 부의장과 한양임·강성훈·정재성 의원은 신용동에 위치한 셋별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해 온누리상품권, 백미, 과일, 명절선물세트 등을 전했다.

구의원들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시설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최무송 북구의회 의장은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북구의회 역시 어려운 이웃을 세심히 살피며 따뜻한 의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의회는 명절마다 지역 사회복지시설 위문과 봉사활동을 이어가며 따뜻한 나눔문화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광주 서부경찰

기초질서 확립 합동캠페인

광주 서부경찰이 어린이 등굣길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서부경찰은 30일 광주 서구 화정초등학교에서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어린이 등굣길 기초질서 확립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서구 교통지도과, 영주초등학교 등 유관기관과 협력단체가 함께 참석했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끼어들기, 꼬리물기 등 ‘5대 반칙적인 근절’을 위한 기초질서 확립, 어린이 안전보행 3원칙 ‘서다, 보다, 걷다’를 적극 홍보했다.

서부경찰 관계자는 “기초질서는 사회가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약속이다”며 “유관기관 등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게시판

알림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상담=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가족을 대상 무료 상담 진행.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 함께한결같은센터. 문의 062-374-2818.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담직업능력개발원 문의 061-320-7024.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모집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있는 일반인.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후문 80m, 문의 010-4622-7838.

▲광주 북구 여성인력개발센터 글쓰기교실=글쓰기 기초를 통해 심리치료를 하는 동시에 자신을 만나는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문의 062-266-8500. ▲블로그 창업희망자 숙성교육생 모집=스마트폰 활용가 능자 모집. 5~6명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블로그창업동호회, 문의 062-511-0030.

부음

▲김갑순씨 별세. 정승구·정명구·정현구(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 모친상. 구영숙·유선호·안영선 시모상. 정지현·현진·빛나·대서·다운·혜련·혜미·대광·지민·지혁·하늘 조모상=9월 30일 광주수완장례식장 3층 특실. 발인 10월 2일 오후 12시 50분. 장지 담양 갑향공원. 010-3071-0757.

운세 (음력 8월 10일)

48년생 가족들로 인한 경사가 따르다
60년생 투지 거러 신중히 생각하라
72년생 거러 실수로 문제가 생긴다
84년생 예견되는 부분까지 관리하라
96년생 사업 운이 옹하니 기회가 온다

51년생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하루
63년생 육식을 앞세우면 남뱀
75년생 자급 용통이 손조워진다
87년생 마음을 고치면 열굴도 달라진다
99년생 동료와 잘 지내도록 하라

54년생 대체로 원만하게 일이 진행
66년생 의욕이 생긔는 하루
78년생 안일한 행동은 삼가하라
90년생 소송은 불길하니 타협하라

57년생 무슨 일을 해도 술술 잘 풀릴 것
69년생 합리적으로 운용해 나가라
81년생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라
93년생 자격시험에 끈질기게 매달리라

49년생 고비를 잘 넘기면 좋은 결과
61년생 절대 간단히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73년생 여행은 시기적으로 좋지 않다
85년생 일을 시작하는 것이 매우 길한 시기
97년생 작지만 소중한 것이 찾아온다

52년생 내키지 않으면 수용할 필요가 없다
64년생 외국의 돈이 들어와 기분 좋은 날
76년생 투자 유혹을 과감히 떨쳐 버려라
88년생 분수 것 행동하는 것이 유익

55년생 지인과 돈거래 삼가하라
67년생 반기에 사람을 만날 것이다
79년생 모든 일에서 예상외의 효과가 있다
91년생 경쟁성이 있는 일을 양보하라

58년생 자식이 제일 큰 보배이다
70년생 분수에 맞게 행동하라
82년생 능력에 맞게 계획을 진행하라
94년생 새로운 변화를 꾀해 보도록 하라



강은주 교수의 사주·풍수·직명

50년생 말을 잘 따르면 좋은 일이 생기
62년생 경쟁사 말을 들어보라
74년생 때가 아니면 천천히 진행하라
86년생 주변사람 감언이설에 속지말라
98년생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전고하라

53년생 참견하면 피곤해하고 다들 수 있다
65년생 유혹이 많은 날
77년생 동분서주 하지만 별 소득은 없다
89년생 문서 따라서 대응 할 필요가 있다

56년생 가법계 여결 문제가 아니니 신중하라
68년생 그 일은 될 것이니 열려하지 말라
80년생 요행수는 절대 금물
92년생 급작스럽게 변화가 있는 날

59년생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도장 찍으라
71년생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다
83년생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
95년생 어떠한 이유론든 여행을 떠나라